



◇ 흥법원을 근거로 미국 포교의 결실이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인 제자가 출가를 하기도 했다. 사진은 법회에서 설법을 듣는 미국인 제자들.

# 푸른 눈 먹물 옷 입은 제자 탄생

##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지구촌 전법이야기

### 승산 스님 ⑧

낯선 미국인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행원스님의 입장에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르치는 쪽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배우는 쪽에서는 그 생소한 수행법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파트 법당의 수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눈빛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정도까지 다다르고부터는 생활 자체에 하나의 질서가 부여될 수 있었다.

초청을 받아 왔는데 도착 즉시 달마사를 개원해 포교에 들어갔다.

정달스님도 행원스님처럼 일몰해 야만 했다. 신방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 미국 땅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곳이었다. 이방인에게 정진의 지도자로 자리잡기에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우선적이었던 것이기도 했다.

미국제자들은 언제까지나 낮에 일하고 저녁에 참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참선을 하고는 일터로 나갔다. 참선도 잘했지만 절도 잘했다. 애당초 김정선교수가 미국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질을 시

법의 물줄기를 댄 것이기도 했다.

흥법원을 근거지로 해서 미국포교는 거듭거듭 발전해 나갔다. 스티븐이라는 제자는 무각(無覺)이라는 법명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보스톤에 선방을 열어 잘 운영했다. 그곳에 행원스님은 진경, 법안스님등을 초청하기도 했다.

뉴해브에 낸 선방에는 예일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왔고 데이브, 스티브, 바브 등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선방을 이끌었다.

각지에 선원이 생겨나면서부터 행원스님은 제자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공부시키고 그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선원마다 선원장과 입승, 원주, 교무 등의 소임을 정했다. 그들을 하나씩의 소임으로 스스로 할 일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깊이를 재는 일이었다.

처음 입문해서 3~4개월은 기초 교리를 가르쳐서 불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관별하게 된다. 두어

# 쪽지에 적어준 공안은 3천장에 이르고 흥법원 중심 미국포교는 차츰 결실단계

행원스님이 단어를 써 놓으면 제자들은 그 단어를 꿰어 맞춰서 법문으로 만들곤 했다. 그런 단어와 단어들로 통한 의사소통은 다름아닌 공안이라고 있었다. 참선에서의 화두란 식사를 하는데 있어 숟가락이나 포크가 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수좌들. 그들에게 쪽지에 적어 준 스님의 공안은 그날의 수행과제이기도 했던 것인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 3천장에 이르렀다.

이제 미국생활에 대한 요령이 생기고 벽안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에 수행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있을 무렵 재미 흥법원을 세웠다. 72년 9월의 일이었다. 그해에는 뉴욕에 삼보사도 세워졌다.

삼보사는 당시의 정달스님이 세운 것이었고 73년 1월에는 구산스님이 삼보사와 흥법원을 다녔다. 또 혜정스님도 미국의 법당을 다녀갔고 계정스님도 미국으로 배낭을 지고 왔다. 계정스님은 행원스님의

키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던 충고는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행원스님은 그 개인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한국 절에서 소임을 나누듯 이 한가지씩 소임을 맡겨 그 일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다. 시키는 것에 대한 복종은 잘 안해도 자기의 소임에 대한 책임감은 무서우리만큼 철저한 것이 미국인들이었다.

아무튼 스님은 미국의 제자들과 또 하나의 도전을 했다. 그것은 돈 모으기 원력이었다. 여름 어느날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다. "자, 이제 너희 10명과 나를 합해서 열인명은 3개월간 열심히 일을 해서 1인당 천불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1명의 식구는 더 배고프고 더 알뜰하게 살아내야 했지만 석달 후에는 1만1천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산 것이 흥법원 4층집이었던 것이다. 뉴욕에 흥법원을 세운 것은 스님 개인의 일이기도 했지만 한국불교가 정식으로 미국에 전

차례 용맹정진을 시킴으로써 그의 인내력과 불교에 대한 열의를 체크하기도 했다. 그 단계를 지나면 5계를 설하고 다시 1년이상 선공부를 시킨다. 행원스님이 만든 '선외 참관'이란 공안집을 막힘없이 훑어볼 수 있게 했다. 그 시합을 넘어서면 법사로 불렀다. 법사를 명명받았고 5년가량 더 공부해 천찰백 공안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정도가 되면 지도법사 자격을 주었다. 그래서 선원을 맡기고 신자들을 지도하게 했던 것이다.

출가에 대한 간절함이 갖든 사람은 출가수행도 가능하게 했으므로 푸른 눈에 먹물옷을 걸친 제자도 생기게 됐다.

아무튼 행원스님의 미국포교는 여러하게 흐르는 물처럼 시간을 따라 마당도 넓어지고 결실 거두게 되었다.

임연태 기자

# '身土不二'는 보토스님의 계승

## "法身은 찬란한 大地" 690년전 용어 東大 오형근교수 밝혀...BBS 추석날 방송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어원이 불교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91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우리 농산물에용운동의 슬로건으로 떠오른 '신토불이'란 용어는 690년전인 1305년 중국 원나라의 보도(普度)스님이 지은 계승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불교방송은 추석인 지난 9일 아침 8시 'BBS 뉴스광장'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오형근교수의 말을 인용 '신토불이'는 보토스님의 계승제목임을 밝혔다.

오교수에 따르면 보토스님 저술인 '여산연종보감(麗山蓮宗寶鑑)'에 비로자나불의 법신과 대지(大地)는 한몸과 같다는 뜻의 계승이 '신토불이'란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계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로는 곧 적광도요(鹿盧即是寂光土) 적광은 곧 대비로이다(寂光即是大毗盧) 몸과 흙은 본래 두가지 모습이 아니며(身土本來無二相)

황성은 원래 대경도이다(皇城元是大京都)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은 곧 빛나는 대지이며 몸과 흙은 본래 둘이 아닌란 뜻이다.

"보토스님의 이 '신토불이' 계승은 현재 국산농산물 애용운동의 슬로건과 다소 인상적 차이가 있으나 큰 의미에서는 통하는 바가 많다"는 오교수는 "그간 '신토불이'의 어원을 모른 채 사용해 오다가 불교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글귀와 사상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의 뉴스를 접한 공보처의 한 관계자(과장급)는 연휴직후인 지난 11일 동국대로 오교수를 방문, 보다 정확한 전거가 기록된 논문집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을 구입해 갔다. 그는 또 오교수에게 "나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계에서 이미 6백90년전의 계승 제목이었던 '신토불이'를 찾아 매우 기쁘며 그 의미도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토불이'와 관련한 사상은 불교에서 '색신불이(色身不二)'라는 <기신론>의 귀결이나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분이나 모두 통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임연태 기자

### BBS '천수천안' 새 진행자 김 양 일씨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불교방송에서 제 2의 방송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91년 불교방송 출근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만 4년간 투병을 해온 김 양일씨가 지난 11일부터 시사프로그램인 '생방송 천수천안' 진행을 맡았다.

"투병생활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힘썼습니다. 몸의 불편함보다 더 힘든 것은 방송을 못한다는



### 4년 투병뒤고 제2의 방송인생 시작

좌절감이었지만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방송할 날이 오리라는 확신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다."

4년의 세월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이었다는 그는 왼쪽 몸부위의 신경마비를 운동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탁월한 시사감각과 객관적인 논평으로 잘 알려진 김양일씨는 28년의 방송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 불교정신을 통해 민감한 시사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불교방송에서 방송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김양일씨는 67년 동양방송에 입사하여 KBS 보도국에 근무하며 초창기 '주최 60분'을 진행했으며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방송위원으로 영입됐었다.

김양일씨는 불교방송 개국 한달뒤인 90년 6월부터 시사프로그램인 '생방송 천수천안'을 진행했다.

<원>

### 방송가 소식

#### '불교의 장인·예인 17인'

btn 영상사업부 제작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불교의 장인 예인 17인'을 제작한다. 제 1편으로는 불화의 대가인 인간문화재 48호 '만불스님'편을 지난 1일부터 제작중이다.

불교장인은 이광규, 원광식, 정문길씨등 8인과 송암, 일음스님 이매방 한동희씨등 9인의 예인을 비디오로 제작한다.

#### 이동인 스님 유묵 추가 발견

불교방송은 최근 이동인 스님의 유묵 2점을 추가로 국내에서 발견했다.

이 유묵은 이동인 스님이 일본의 오쿠무라엔신에게 보낸 것으로 가로 68센티 세로 15센티의 크기이다. 특히 이 유묵은 유일하게 이동인 스님의 동경주소와 이름이 적혀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묵 2점은 진기스님(동대강사)과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이 소장해 왔다.

불교방송은 이 유묵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하여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5시 10분에서 6시까지 추가로 재방송할 계획이며 이달말경 7백쪽 분량의 '개화승 이동인' 자료집도 발간하여 교계 및 학계에 배포할 방침이다.

#### '백팔가요' 광주 공개방송

불교방송 백팔가요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시민을 위한 팝콘서트'를 연다.

탈린트 김나운씨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날 공개방송에는 이광규 등 유명 원미연 변진섭 박경은씨와 테너 김진원 소프라노 김윤자씨가 출연한다.

이예앞서 지난 17일 용인자연농원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2시 이세훈씨의 진행으로 '가을사랑 국화열에서'를 개최했다. 박경은 김경은 비타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이 출연했다.

#### BBS 교통통신원 체육대회

BBS교통통신원총회(회장 양재국)는 내달 15일 한강 중저도에서 회원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불교방송이 '살생부(殺生簿)'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살생부'란 용어가 적힌 문건이 불교방송 계시관에 붙은 것은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이런 살생부가 어디 있는가"란 제목의 대자보는 직원들이 솔지리에서 노조설립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한 직원이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발견돼 공개한 것.

실제 대자보에 첨부된 보고용 문서는 '어떤 직원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식의 첩보성 보고서였다. 이는 방송국내에 직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비밀 노선이 있음을 극명



김원우 (취재2부 기자)

### 불교방송 '살생부' 파문

히 드러낸 것으로 문서에 이름이 오른 직원들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대자보가 나붙은 뒤에도 방송국 측은 관련 해명이나 인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직원들은 더욱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름이 거론된 직원들은 "노조결성 등은 논의한 바도 없는데 거짓 보고서가 작성된 건 등이 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어 당분간 불교방송은 이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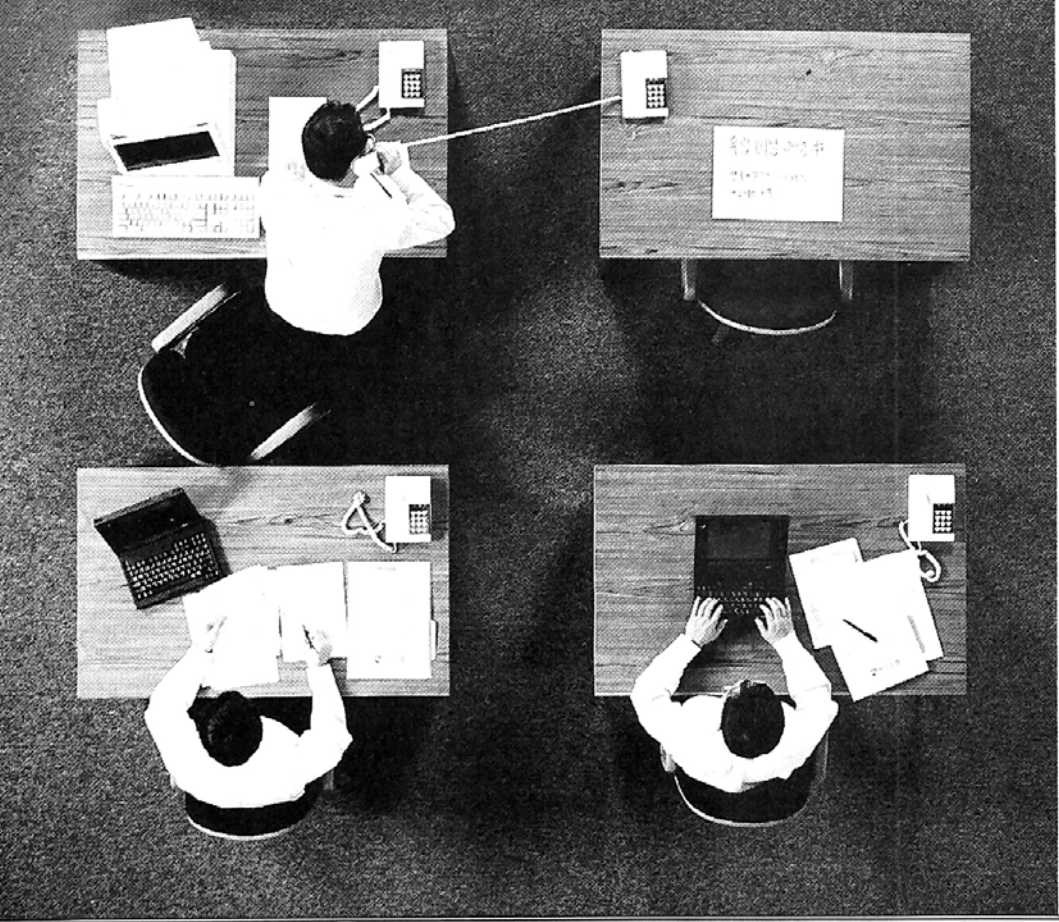
진통을 면키 어렵게 됐다.

3. 26 생방송성명서파문 이후 조계종 불방특위와 신경전을 계속 벌여온 불교방송은 지난 5월 김태호 사장의 퇴임이후 계속 난항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직원들의 사기저

하로 인한 방송내용의 부실 등을 지적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또 제 18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강한필사장 직무대행의 보직해임 건 등이 거론되고 있어 불교방송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시기에 불거져 나온 '살생부파문'은 하루속히 꺼야할 불이 아닐 수 없다.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혼돈의 세계에 접하는 전법도량이다. 방송을 아끼고 성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하루속히 전법도량의 면모를 다잡길 기대한다.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두산이 인재의 세계화로 열고 있습니다



#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